

1. 自立된 100教会의 設立
2. 主님의 일꾼의 養成
3. 작은 이웃들과 함께 사는 宣教
4. 在日同胞의 삶에 同參하는 奉仕



平壤에 두번째로 세워진 七骨教会(上)와
7月30日主日風水教会에서 礼拝드리는 總會代表들(下)

總會代表 共和國 訪問

平壤·風水教会에서 感激의 主日礼拝 出席

朝鮮基督教徒聯盟과 協議 海外民族教会大会 開催키로

總會代表가 지난七月二十
九일부터 八月十二일까지 共
和國을 訪問, 朝鮮基督教徒
聯盟(委員長 張容信)과 協
議, 風水教会, 元山·개신에
배치소에서 主日을 지키는
등 많은 成果를 거두고 돌
아왔다.

訪問團 代表(團長 金桂
吳牧師)는 七月二十八日,
中國民航으로 成田을 出發.
二十九日, 中國 朝鮮大使館
에서 入國査証을 받아, 同
日午後三時三十分, 朝鮮民航
으로 平壤을 向했다. 五時
頃, 平壤空港(順安)에 도
착, 朝鮮基督教徒聯盟과 僑
胞總局의 歡迎을 받고 共
和國 땅을 밟게 되었다.

宿所는 高麗호텔로 定하
고 僑胞總局 主催의 歡迎
晩餐이 있었다.

三十日 主日에는 실례는
마음을 달래면서 緊張속에
평양에서의 첫主日을 맞이
하였다. 風水教会(리성봉목
사)는 高麗호텔에서 自動
車로 約十分쯤 걸리는 곳

에 자리잡고 있으며 보통
강조를 약간 올린 곳
에 있었다. 平壤市 中心은
아니나 조용한 곳이었다.
礼拝는 午前十時에 시작
하는데 우리一行이 약간도
차이 늦은것도 있었으나 이
미 礼拝堂안은 꽤 차있었
고 리성봉목사의 在日大韓
基督教徒總會 代表團一行을
歡迎한다는 인사로 礼拝는
시작했다. 週報는 없었으나
礼拝順序는 다음과 같다.

①黙禱 ②信仰告白 ③讚
頌歌(예수의 이름 찬송) ④
祈禱 ⑤聖書 ⑥讚揚 聖
歌隊(부른찬송은 내영혼이
은총의 바다를 가까이 하
게함은 하늘가는 밝은 길
이) ⑦說教(約二十分) ⑧讚
頌歌(성령이여 강림하시라)
⑨平和의握手 ⑩讚頌歌(을
은길 따르라) ⑪獻金 ⑫祝
禱 順이었다.

訪問團에서 金桂吳牧師가
祈禱, 李大京總務가 祝禱를
말았다.

리성봉목사는 「마을의 토

八月六日, 主日은 元山에
서 家庭教会에서 礼拝를 드
렸다. 동료 나누어 礼拝에
出席하였는데 한곳에 十餘名
이 出席, 家庭을開放하여
礼拝를 보고 있었다. 共和
國 教会는 讚頌歌를 대채
로 많이 부르며, 피아노도
없고 無曲 讚頌歌인데 참
잘 부르고 있었다.

平壤 하늘아래 十字架를
보고 하나를 讚揚하는 讚
頌 소리를 듣게될때 一行
모두는 큰감동에 사로잡혀
홍분가운데서 하나님께 礼
拝를 드렸다.

訪問團은 八月二日(火)
午後 朝鮮基督教徒聯盟에서
兩教團 첫모임을 가졌다.

聯盟側에서 張容信위원장을
비롯 김운봉목사(聯盟 平
壤市副委員長 조길남목사(聯
盟 副委員長) 박준근목사
(봉수교회부목사) 김혜숙간
사(국제부) 등이었다. 訪問
團은 第四十回定期總會 招
待狀을 전달하고 基督教書
籍들을 傳한후 兩教團間의
交流, 離散家族再會問題, 民
族教会심포지움(남북교회들
비롯 海外韓人教会를 포함)
등을 協議, 적극적인 호응
을 얻게 되었다.

共和國에는 一萬名의 信
者가 있으며, 聯盟에 加入
한 信者는 六千名으로 매
月 月給에서 2%를 會費
로 내고있다고한다. 四年에
定期總會를 갖게되고 있으나
아직 總會를 갖지 못했고

元山에서 家庭教会 參席 어린시절 신앙의 씨 자라기 시작



元山·개신에배치소에서 礼拝드리는 모습

第40回定期總會 標語決定!

『모든 것을 다하여 함께 福音에 參與하자』

오는十月
에 열리는
第四十回定
期總會를 맞
이하여 標
語를 다음
과같이 결
정했다.

「모든것을
다하여 함
께 福音에
參與하자」
(すべてを
尽し、共に
福音にあず
かる) I
コリント九
: 24

今年 總會는 宣敎八十周
年을 昨년에 끝마치고 宣
敎九十年을 向한 첫總會로
在日同胞에게 福音을 傳하
는데 全力을 다하기 위한
決心으로 이 標語가 決定
됐다.

總會는 宣敎九十周年을 向
한 標語인 「우리에게 새힘
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와 아울러 第四十回總會期
間인 一九九一年까지 二年
間 이 標語아래 前進하게
될것이다. 定期總會에는 本
國을 비롯 많은 教会代表
들이 來賓으로 參加한다.



每日 아침七時, 호텔에서
礼拝드리는 總會代表들

다. 金剛山에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창조와 숨겨진, 배
두산에서는 민족의 긍지
를 안겨주는 어머니의 품
과 같은 너그러운, 板門
店에서는 分斷의 쓰라림과
民族의 어리석음을 보고 체
험하였다.

總會는 四年前에 南北宣
敎委員會를 設立, 民族의和
解를 追求하여왔다. 더욱이
日本에서 分斷狀態에 있
는 兩組織(民團, 總連)과
의 對話를 模索해왔다.

이번 共和國을 訪問하게
된것은 八八年七月七日, 盧
泰愚大統領의 特別談話에 따
라 海外居住者의 北韓訪問
을 申告함으로 可能하다는
韓國政府의 政策에 立脚하
여 駐日大使館을 통해 申
告하여 訪問하게된것이다.

在日大韓基督教会 第四十回定期總會

召集公告

主안에서 本總會傘下에 있는 모
든 教会와 信徒들의 平安과 發展
을 기도드립니다.

一九八九年度 本總會第四十回定
期總會를 다음과같이 開催함을 公
告하는同時에 本總會發展을위하여
下記事項에대하여 貴教会와 總代
表의 기도와 協力을 부탁드립니다.

記

(1) 第四十回定期總會

時日 一九八九年十月十七日(火)

午後一時三十分 ~ 十八日

(木) 午後三時

場所 大阪 教会

大阪市生野区中川西二一五十一番

電話 〇六(七二二) 三三七七番

(2) 協力부탁事項

① 一九八九年度 各教会 宣敎負
担金을 納入하여 주실것.

② 特別指定獻金 未納分을 보내
주실것.

③ 各教会 地方會 獻議案을 九月
二十일까지 보내주실것.

④ 各機關 一年活動報告를 提出
하여 주실것.

一九八九年九月十五日

在日大韓基督教会總會

總會長 楊炯春

李聖雨牧師 委任式

武庫川教会 挙行



李聖雨牧師

昨年七月九日(日)午後四時、西部地方会の武庫川教会会堂にて、李聖雨牧師の委任式が、総会傘下、 여러教会와 日本教会の 聖徒、百五十余名が参加して、挙行された。

臨時堂会長 辛鍾國牧師(神戸教会)の司会を、李聖雨牧師(金信煥牧師(広島教会)の祈禱、文泰善牧師(川西教会)の聖書奉読(마태二

十五・十四・三〇)、武庫川教会 聖歌隊の 讃揚、金得三牧師(西宮教会)の「차하고 忠誠된 종」이란 題目の説教が、있음후、辛鍾國牧師の委任式、牧師の紹介と誓約が、있었다。文泰善牧師가 委任받았는 牧師에게 金得三牧師(神戸東部教会)가 牧師(神戸東部教会)가 牧師에게 勸勉이 있었다。林秉善長老(武庫川教会)가 牧師을 대표하여、牧師에게 婦人會가、師母에게 禮物贈呈을 하였고、教会學校와 婦人會가 꽃다발을 贈呈하였다。祝辭는 金榮植副總會長(大阪北部教会)、李鍾國西部地方會會長(神戶東部教会)野村基三牧師(尼崎教会)代

教団・横浜地区諸教会と 横浜教会との合同礼拝

教団・横浜地区諸教会と横浜教会との合同礼拝が、九月八日(金)午後七時、横浜教会(尹宗銀牧師)で、兩教会から約百三十名が参加し、開

해서는 親切한 牧會를 하겠다고 다짐하였다。李慶浩執事の 祝電披露、金吉雄長老(武庫川教会)의 인사와 李聖雨牧師의 祝禱로 礼拝을 마치고 婦人會가 準備한 祝賀파티가 있었다。李聖雨牧師는 大韓예수교長老會(合同側)가 派送하여 七年間 豊橋教会에서 牧師하였고 昨年十月에는 豊橋教会堂을 新築、獻堂하고 이번에는 武庫川教会에 새롭게 赴任하였다。

投稿 歡迎
一、内容：総会、教会、関係、地域運動、에 関하여 個人 教會現狀報告書、說教、やさしい 神學、각종、青年會、婦人會等의 活動報告
二、枚数：二千字以内

平信徒를 위한 聖書공부 ③

再臨에 對해서

使徒行伝 1:9~11

李應周牧師(岡崎教会)

(出24:15-16)였다.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배껴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百姓으로 듣게 하려 함이요(出19:9)고 했다.

(2)구름의 의미. 以上 여러 곳에 記錄된 內容을 詳考하면 「구름」은 하나님의 거룩한 榮光을 나타내 보인 다. 決코 自然界의 物質的인 구름은 아니다. 時時로 하나님께서는 불火(과 구름으로 役事하셨다. 이스라엘 百姓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引導해 내실때 낮에는 구름기둥을 세워 애굽의軍隊를 막아주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能力으로 保護함을 가리킨다. 그리고 언제인가 예수님이 再臨하실때는 榮光의 구름을 타고 오실때 神聖한 눈들 가진 信者들은 分明히 보게 될것이다.

「그때에 땅의 모든 族屬들이 痛哭하며 그들이 人子가 구름을 타고 能力과 큰 榮光으로 오는것을 보리라」(마24:30) 그리고 再臨의主는 能力의 主님으로 오신다는 것이다.

(3)불꽃가운데 오신다. 불꽃중에 나타나실 再臨主,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主를 服從치 않는 자들에게 刑罰을 주시는 公義의 審判主로 再臨하신다(살前1:7-8).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때는 이땅에 불을(聖靈의火) 던지셨다(눅12:49)고 했다. 그리고 昇天하신 後에 約東대로 聖靈의 能力의 불을 보내셨던 것이다(行伝1:5-8, 2:1-4).

(4)天使들과 함께 오신다. 主님의 誕生時 天使들이 牧者들에게 아가 예수님의 誕生의 기쁜 消息을 傳했다(눅2:10). 그리고 主님이 再臨하실때는 天軍天使들이 그리고 降臨하신다(살後1:7, 4:16). 天使는 被造物(出24:15-16)였다.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배껴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百姓으로 듣게 하려 함이요(出19:9)고 했다.

(5)하나님의 나팔로 降臨하신다(살前4:17). 聖書에 나팔이란 樂器가 있는데 이것은 會衆을 모을때 불고 또한 아침에 起想의 나팔로, 戰爭터에서 公敵의 信으로, 나팔을 불고, 모든일 에 勝利했을때 나팔을 불기로 하며, 그리고 安息의 나팔을 불기도 했다. 그러 나 信者는 福音의 나팔을 불수있는 特權을 주셨다. 나팔은 分明하게, 뜻있게, 불어야 한다. 靈的인 信者는 主를 再臨時 하나님의 나팔을 吹는 信者를 일으키는 나팔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信者를 變化시키는 役事를 일으키는 나팔소리가 된다. (고前15:22).

(二)再臨의 目的

(1)世上審判을 해 오신다(고後5:10). 이는 우리가 다 만드신 그리스도의 審判台前에 드러나 各善惡間에 그 功으로 行한것을 따라 報應을 받는다. 「自今以後 모든 罪人들에게 公義로 審判하여 報應하기가 公해사다.」 그리고 不法의 人世上에서 裁判으로 惡을 當한 者들의 罰을 受신 하라기 위해서다.

(2)魔鬼를 滅하여 오신다. 예수께서 空中再臨時 空中權勢를 잡고있던 魔鬼는 地上으로 쫓겨나 患難을 일으키며 天下万国을 迷惑하다가 예수님이 地上에 再臨하실때 잡아서 結縛하여 一千年間 無底坑에 가두어 두게 된다(엡2:2, 1:20).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寶座의 審判長으로 魔鬼와 魔鬼를 따라간 者들을 審判하여 永遠한 불못에 던지신다(黙20:11, 15). 主의 約束은 어떤이의 더디다고 生覺하는것 같아 더딘것이 아니다(벧後3:9).

九・一集會開く

サハリン同胞が参加、実情を呼訴

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六十六周年記念集會が、九月一日(金)東京・神田パンセで開かれた。日本キリスト教協議會、在日外国人の人権委員会等が後援。在日韓国人・朝鮮人の人権獲得闘争委員會の主催。今回の九・一集會は、サハ

リンに強制連行され、今なお祖国に帰ることができない、サハリン在住の朝鮮人等を迎えて開かれ、日本の戦争責任戦後処理問題を問いただした。九・一集會は、崔昌華牧師の司会のもと、姜榮一社会局長、日隈光男牧師(日本キリスト教協議會在日外国人の人権委員会委員長)の連帯のあいさつがあった。

ドキュメンタリー「サハリンに置き去りにされた四万三千人」が上映され、祖国の土を踏み、父母・兄弟にひと目会いたいと叫ぶ離散家族の涙の訴えに、今さら日本政府の戦後処理がなされていないことを痛感させられた。指紋捺捺を拒否し、再入国不許可のままアメリカに留学したことで、協定永住の資格を奪われた崔善愛さんの証言があった。崔さんは、百八十日の特別在留の不安定な在留資格のままである。中・ソ離散家族会会長の李斗勲氏、サハリン在住で、サ

ハリン・レーニン道新聞社社長の成点模氏、サハリン裁判を担当している高木健一弁護士らが、サハリン在住の離散家族の問題、これに対する日本政府の消極的な対応の問題、ソ連のベレストロイカ改革以後、手紙の交換や祖国訪問などが少しずつ実現していることを紹介した。

サハリンには、今なお四万三千人が残されており、多くの朝鮮人がソ連国籍を取る中無国籍にされた朝鮮人もおるとのこと、さらに一世の生存者は千五百人から二千人に過ぎず、二世三世の世代となり、文化・歴史・言語等においても在日同胞と同じく多くの問題をかかえているとのことであつた。

韓国政府は、在韓被爆者やサハリン在住の朝鮮人の援護問題で、日本政府に対し賠償要求の動きをしめている中、今回のサハリン在住の朝鮮人の日本訪問は大きな意義をもつことになった。

(株)京都メッキ

社長 茂 戌 冀
(京都南部教会長老)

〒601 京都市南区東九条南岩本町2-2
電話 075-681-6391

自動車部品製造
自農機具部製造
コントロールワイヤ (金属挽物一式)
★従業員募集(誠実、勤勉な方)

山田金属工業

代表者 金 吉 雄
(武庫川教会長老)

〒661 尼崎市南武庫之荘10丁目1-17
電話 (06) 436-7840(代)

〈電々公社認定〉
構内交換機・ボタン電話
松下通信工業(株)専売代行店
(株)ナカヨ通信機特約店
東亜特殊電機(株)特約店

株式会社 高德通信工業

代表取締役 李 建 豪
(名古屋教会 長老)

〒490-11 愛知県海部郡大治町大字砂子字村東2336
電話 名古屋<52>431-3156(代)

東逸通商 株式会社

代表取締役社長 崔 誠 元
(東京教会 長老)

本社 東京都中央区銀座8丁目16番10号
〒104 (中銀カプセルタワービルA 601)
電話 (03) 541-2270(代)
FAX (03) 656-2708

